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호 [루체 제22974호] 주제99 (2010)년 1월 22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설

## 성강의 본때와 투쟁기풍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전통적 호소따라 대고조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다. 온 나라가 혁명적 열정으로 새 차세를 끌어내리고 그 어려서나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창조의 기백이 약동하고 있다.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경영한 대고조진군의 유행과는 성진체 강련합기소의 로동계 글이 서 있다. 성강에서 쓰러져 나오는 장폐한 주체의 쇠물포가 천만군민의 전투적 사기를 침침배로 높여주고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 커다란 힘을 안겨주고 있다.

김책제 철련합기소의 로동계 글은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숨결을 같이하며 세상을 들었다는 기적을 창조한 성강로동계 글이 지극한 충정과 영웅적 투쟁기풍, 혁명적 일본새를 온 나라가 따라배울 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주체의 기적들이 필승의 신심과 땀방에 넘쳐 강성대국의 평화로운 맹렬히 풍물이다. 우리는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성강의 기적은 투쟁기풍으로서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김일성조선의 혁사에 특기할 대변역의 해로 높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땀방에 넘쳐 최후 승리를 향하여 뛰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대고조시대는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벗어나고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 품모와 투쟁기풍에서도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위대한 격동의 시대이다.

남마다, 시간마다 영웅적 투쟁의 본보기들이 창조되고 그것이 전사회에

과급되는 속에 세기적인 기적들과 첨단

돌파의 희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것

이 우리 조국의 장엄한 현실이다.

성강의 로동계 글은 위대한 령도파

와 강성대국의 대문에 노도처럼 달리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개를 힘있게 파시한

전씨배기 영웅들이다.

당파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성강의 로

동계 글은 여러 차례 기업소에 찾아오시어

신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길을 높이

반들고 결사의 투쟁을 벌렸다. 그 나날은 혁명의 때 시기, 매 단계마다 강렬로 당

을 밟아온 성강로동계 글의 영웅적 투쟁

기질이 남김없이 발휘된 나날이었으며 혁

명군인정신의 위력으로 세기적인 변화

를 이룩해나가는 선군시대 우리 인민의

창조본래가 힘있게 뻗쳐진 나날이었다.

우리식 제철제 강법의 성공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성강로동계 글의 무한대한 정신력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8일 성진체 강련합기소를 현지지도 하면서 주체 철생 산재체를 확장하여 세계 야금계에 통장훈을 부르고 3차 학제시험을 한 번 더 토품한 사변을 안아온 이

로동계 글을 혁명적 대고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였다. 여기에는 제임을 고집하고 고난과 시련의 철민고비들을 완강하게 돌파하며 민족사적인 위임을 실현한 성강로동계 글의 중요성과 같은 혁사의

증정이 주체 철생의 탄생과 같은 혁사의

증정을 안아온 것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정생의 뜻과 님원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 보람찬 투쟁이다.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총집

하게 밟들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끌어내거나 같을 때 혼연一体

로 돌아온 우대고조의 대고조역사는 즐기

차제 이어지고 수령님의 님원은 이 땅에

활짝 뿐나게 될 것이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강한 민족자주의 정신과 배운 배경의 분출이다.

전인민족의 길을 걸으며 주체 철생 산재체를 확립한 성강의 로동계 글에게 있어서

『우리식 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는 그대로 삶과 투쟁의 절대적 기준이

있고 좌우명이었다. 우리식, 우리 힘으로

아름다운 철민고비를 세우는

장군님의 키워온 우대고조역사는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조선로동계 글의 강한 혁명성과 무비의 영

운송, 창조의 기백이 높여고있으며 오늘

의 대고조시대에 우리 인민이 지녀야 할

신념과 의지, 일생의 본보기들이 다 담겨져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철민고비를 세우는

장군님의 키워온 우대고조역사는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성강의 본때, 성강의 투쟁기풍은

우리가 어떤 자손임을

배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길이 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85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광복의 천리길》답사길을 열어주신 35돐기념

## 중앙보고회 진행

### 1면에서 계속

《광복의 천리길》에 나서시여 나라 찾는 투쟁의 첫 자욱을 세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전과 무승, 길림을 비롯한 넓은 지역에서 혁명활동을 정직적으로 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주체사상의 가치밀이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 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자주와 선군의 혁명로선을 흔히 들어주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끈번으로 승리의 한걸로 전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독창적인 혁명사상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구원되고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섰으며 우리 인민과 청소년학생들의 궁지높고 보람찬 생활이 마련되었다.

보고자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풍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제현하시고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만년초석으로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을 모시도록 하시고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여 청년동맹조직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최대의 영광과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된 령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에 의해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은 주체혁명의 한걸로 억세게 이어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큰 규모의 답사행군대를 둘고 행군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답사행군대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불러 참관사업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철마다 이집정으로 군인과 학생 청소년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을 선군혁명천만리로 억세게 이어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큰 규모의 답사행군대를 둘고

들을 백두의 행군길을 억세게 이어나가는 혁명의 믿음직한 전위투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혁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답사행군을 청년동맹의 전통적인 사업으로 조직진행하며 뜻깊은 고장들에 청소년 절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여 수령님께서 걸으신 혁명의 천리길을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청년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첫 전위조직인 태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신데 이어 세 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직들을 무으시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키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 수 있었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한결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일찌기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조선혁명의 단길을 개척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철마에 걸친 혁명의 천리길을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여 그는 연금하였다.

그는 당의 부름이라면 청년들은 분초를 아끼며 떠나는 병을 불타는 열정을 암고 우리 청년들은 경제 강국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진격의 둘구구를 열어나가며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더 많이 일제세워 대고조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영예로운 파업이 되어야 할 말하였다.

그는 오늘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가슴마다에 끊어버리는 충정의 열도를 분출시켜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 강성국 건설에 이바지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위엄,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할 영예로운 파업이 되어야 한다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당의 선군사상, 선군혁명위업도 풍요로울 것이다. 대중으로부터 당과 국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더 많이 일제세워 대고조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자는 청소년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경계히 하여 청년동맹과 청년동맹과 청년들의 기본사명이고 기본일무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높은 긍정과 영예,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당의 선군사상, 선군혁명위업도 풍요로울 것이다. 대중으로부터 당과 국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더 많이 일제세워 대고조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당의 부름이라면 청년들은 분초를 아끼며 떠나는 병을 불타는 열정을 암고 우리 청년들은 경제 강국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진격의 둘구구를 열어나가며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더 많이 일제세워 대고조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영예로운 파업이 되어야 할 말하였다.

그는 당의 부름이라면 청년들은 분초를 아끼며 떠나는 병을 불타는 열정을 암고 우리 청년들은 경제 강국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진격의 둘구구를 열어나가며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더 많이 일제세워 대고조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영예로운 파업이 되어야 할 말하였다.

그는 당의 부름이라면 청년들은 분초를 아끼며 떠나는 병을 불타는 열정을 암고 우리 청년들은 경제 강국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진격의 둘구구를 열어나가며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더 많이 일제세워 대고조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영예로운 파업이 되어야 할 말하였다.

그는 당의 부름이라면 청년들은 분초를 아끼며 떠나는 병을 불타는 열정을 암고 우리 청년들은 경제 강국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진격의 둘구구를 열어나가며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더 많이 일제세워 대고조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영예로운 파업이 되어야 할 말하였다.

그는 당의 부름이라면 청년들은 분초를 아끼며 떠나는 병을 불타는 열정을 암고 우리 청년들은 경제 강국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진격의 둘구구를 열어나가며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더 많이 일제세워 대고조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영예로운 파

## 희천시조

기 류 한 첫 차 우  
한 광 춘

가야 할 곳  
먼저 찾으셔야 할 곳 얼마나 많으셨으라  
하나 희천으로!

새해의 첫 자욱을 찍으신 장군님  
그이는 희천의 눈덮인 산정에 오르시였다

아전 복자락이 얼어드는  
혹 한속의 눈보라 강행 굽  
사랑하는 병사들과 인민들이 기다리고 있어  
복방의 험난한 그 길부러  
해쳐오신 장군님

그이 더듬으시는 탕립산맥의 중증철첨  
산발

불이 이는 격전의 전구  
뜨거운 심장들에 바비가 부서지고

얼음강상이 놓아내리는

바로 여기었구나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1 2 1 1 고지로 향하시던 수령님처럼

모든 것을 인민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고조의 전선과 전선들을 이끄시고

우리 장군님 오르신 최전방지휘소가

부강조국의 힘으로 열린 전기

그것으로 끊어아 할 쇠를

그것으로 폭포처럼 할 비단필이

언제를 향해 걸음을 옮기시는

그이의 마음속에 넘실거리고 있었다

불굴의 정신력으로 숨쉬는 언제의 높이에서  
그이는

꽃펴나는 인민 행복의 높이를 보고

《희천 속도》의 불바람  
김 남 호

기적과 위훈이 없인  
단 한초도 그저는 못가

결사의 각오로 펼칠 뿐은

병사들의 심장에 얹혀 뛰어박고

만년언제를 솟구쳐 올리는 희천시간

그 분분초초에 실려온다

희천의 병사들을 믿는다고

계시였다  
불리는 그이 시선 산발하며 저멀리  
비껴갈 때

온 나라 전선이

희천의 열기로 드겁게 달아올랐다

《희천 속도》가

대고조의 전투장마다에서 노도처럼

질풍쳤다

어서빨리 강성대국으로 가자고

령장의 그 손길 높이 드시여

용맹의 더 큰 나래를 말아주시는

장군님

옮기시는 자욱마다 폭풍이 이는듯

그것은 천만십장에

우리 장군님 내리시는 천군구형이었다!

찡—찌정  
청천강반의 두터운 열음장이 갈라지는

소리  
병사들의 가슴에서 불바람이 터져

창조와 위훈에 질풍처 내닫는 소리

새해전투의 첫 일력장이 번져졌다

백두령장의 첫 자욱으로

눈보라 천리길을 오시여

제재으로 흐성강으로...

눈내리는 천리 또 천리를 이어 가신

장군님

끌없는 강행군길 천만리

안아오는 만복의 세월이여

펼치시는 인민의 무릉도원이여

아,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

우리 장군님

거룩한 새해 첫 자욱을 찍으신 희천의

산정이여

내 조국의 땅과 하늘에

2 0 1 2 년의 봄빛이 끄워워라!

눈보라 놀라 놀라

북방의 눈보라를 놓이며

불의 심장들이 뛰고 달리는

언제건설의 견천장을

한눈에 놓여보시는 우리 장군님

계곡을 가로질러

산악처럼 치솟는 언제의 거창한 숨결

에서

장쾌한 발전기의 동음을 들으시는가

만복의 빛과 열을 안고 평양으로 뻗어

가는

례일의 100년도 오늘에 당겨오는  
《희천 속도》가 되었다

낮과 밤이 질주하며  
불굴의 정신력으로 굽이치는 거창한

숨결

산악을 통째로 날리는 폭음으로 울리고  
하늘땅을 달구는 용집불꽃으로 태울과  
온 건설장을 뒤흔드는 립체전의 희성

이여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시간은 흔된다

하하

허나 여기 희천에선

병사들 심장처럼 앙고사는 그 믿음으로

영사가 처음보는 비약의 분파 초기 호

른다

세상에 없는 희천시간이 흔된다

그이 지펴주신 《희천 속도》의 불바람

이여!

우리 장군님의 심장의 박동으로 고동  
치는 희천시간

조국번영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는

우리 장군님의 거대한 보폭으로

세월을 주름잡는 희천시간

그 시간에 발을 맞춘

온 나라 전선과 전선이 2012년을

안고

불의 격류가 되어 노도친다

백전백승의 최고사령관기를 펼쳐

날리며

일당백용맹으로 나래치는 선군조선의

속도!

세계가 보란듯이 강성대국을 안아올리

는 시간

그이 지펴주신 《희천 속도》의 불바람

이여!

행복의 물보라  
준공의 환희를 터치는듯

그이의 승용한 모습 우러르는 가슴들에

세차게 일렁이는 격정의 파도여

새 해 이 아침의 첫 생각도

수령님께 기쁨드림 그 하나의 생각

온 나라 전선들을 이끄시고

내디디신 총공격전의 첫 걸음도

수령님의 그 님원 암고 폐신 첫 걸음

그 걸음

그 생각으로

선경미을 선경거리를 일떠세우고

오태과 무트익은 사회주의 무릉도원

펼치시며

현신의 낮과 밤을 이으시는 우리 장군님

그이 뜨거운 안팎으로 평양하늘을 바라  
보시며

인민의 락원으로 절경가는 이 땅에

번쩍이며 열려질 행복의 창문들

풍족한 식탁, 흥성이는 매대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소리

이 한해에 얼마나 더 밝아지고 더 높아  
질것이냐

눈부시여라 아름다워라

수령님의 봄원을 풀피우시며

전선길을 이어 가시는 장군님 마음

속에

언제나 안고하시는 평양하늘!

2 0 1 2 년의 그 불날을 암고

태양의 미소 흐르는

아, 평양하늘 평양하늘

## 기념비

## 김 성 조

그것은 오로지  
병사들을 믿고 승리를 믿으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 위대한 심장에서만 탄생 할수 있거니

병사들은 감격과 환희속에 그려보았다

조국에 아름다운 빛과 열을 주는

발전소의 웅장한 모습과 함께

기념비의 제막포가 벗겨지는 격정의 그

순간을

피와 땀을 아끼라

그 무엇을 주지하랴

그이의 사랑 밀음을 받아안은

희천의 영웅한 병사들의 맹세

눈보라를 태우는 건설의 불보라로 타번

졌다

수령결사옹위, 결사판절의 정신력을

멸치며

총공세의 더 큰걸음을 내짚었다

이제 새거지리라 그 기념비에는

눈비에 젖고 땀에 절은 그 나날들에

우리 병사들이 만년청춘언제에 다진

백발불굴의 신념과 의지

세상에 부럼없는 인민의 행복이 꽂퍼날

그 날과 달들을 가슴에 새기고

2 0 1 2 년을 언제로 떠들어올린

《희천 속도》창조자들의 빛나는 위훈이

아, 애국으로 불타는 천만군민의 삶을

불멸의 글발로 새겨주실

선군령장의 축복에 받들려 솟아오를

기념비여

너는 빛나리라 천만년 무궁번영할

이 나라 강성대국의 대문앞에!

## 희 눈 우에 꽃 피는 전 설

## 장 명 걸

병실에서 전투장까지 그 거리를 가늠하  
시며

# 절세위인의 애국현신으로 빛나는 위대한 현실

세계가 부러운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전체 인민이 앞날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희상을 갖고 힘차게 들판하는 지금 강성대국의 대문에 두드리는 희한한 소식들이 헌일 전래하고 있으며 날에 날마다 세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어 사람들을 홍분시킨다. 위대한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는 가슴벅찬 오늘의 현실을 두고 누구나 애국애민의 열정으로 심장을 뛰어시며 초강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로 꽂을 피운다.

자나깨나 인민의 행복만을 생각하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년사시철을 선군장정의 천만리길에서 맞고보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장군님의 혼신의 자속이 새겨지는 날마다에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 세계가 일기까지 못하는 천지개벽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현신으로 이룩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이 놀라운 전변 앞에 남녘겨레들은 경향을 금지 못하고 있다. 그들 속에서는 인민 생활향상과 무궁번영할 민족의 미래를 위해 온갖 노고를 바쳐 가시며 협력 향유하고 이어나가 세계가 일기까지 못하는 천지개벽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광주에 사는 한 주민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에 매혹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어떻게 하면 민중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더 잘 살게 하겠는가. 김정일장군님의 사색과 실천은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수없이 이어지는 현지지도는 민중이 어떤 식료품을 먹고 어떤 생활필수품을 사용하며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를 알아보시고 민중의 요구를 해결해 주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명처럼 찾아오시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이같은 혼신지도는 이북땅 그 어디

는 현지지도는 민중이 어떤

식료품을 먹고 어떤 생활필수품을 사용하며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를 알아보시고 민중의 요구를 해결해 주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명처럼 찾아오시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의 걸음을

걸음에서 이제는 전대미문의

『고난의 행군』이 럭월의 행군으로 전환되었고 오늘은 이북

민중의 행복과 번영의 씨앗이

움터나 탐스러운 열매로 주렁주렁하고 있다. 세계가 일기까지

못하는 천지개벽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김정일령수님께서는 온 나라의 방방곡곡의 공장과 팔관, 건설장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며 오늘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 계신다.

언제나 민중속에 계시며 민중 행렬차에서 똑똑한 드리고 웨기 밤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생신날마다 민중을 위해 바치시는 정신으로 민족의 미래를 위해 온갖 노고를 바쳐 가시며 협력 향유하고 이어나가 세계가 일기까지 못하는 천지개벽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정신정령의 직접적 당사국인

미국이 지체없이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바란다면 북의 제의에 즉시

있고 행복이 있다고, 인민들이 잘 살고 기뻐하면 자신께서는 더 이상 바랄것이 없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말씀은 오늘도 겨례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옮겨주고 있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끊임없는 현지지도는 인민의 기운을 가꾸고 조국의 세부를 늘이며 부강번영의 도약대비 마련하신 저록한 령도이다. 지난 해 인민의 히상이 실현되어 사령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김정일장군님의 고속으로 민중의 행복은 꽂고 광장에 민족의 행복은 소리쳐 마중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김정일장군님의 미래를 앞당겨오는 위대한 사랑의 자속이라는 것을 청감한 남녘겨레들은 흥분한 자기들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령수님의 현지지도는 이북에 위대한 현지지도를 찾으시는 동료들에게는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천만가지 히상이 실현될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적 풍모에 매혹된

남녘겨레들의 경탄과 칭송의

마아리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세상에 저노하는 국가지도자는 많았어도 경애하는 장군님과 같이 현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한 행보와 기쁨을 알고 하시며 부민불휴의 민중사랑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시는 분이 바로 김정일령수님이시다.

『김정일령수님께서 서시

여 천만군민을 영광과 승리를

여로 이끄시는 위대한 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땅에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전면적으로 꽂쳐나는

시대가 절차지고 강성대국건설

위업승리의 총포가 터져 오를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경애하는 김정일령수님의 정신이

온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천만이며 그이를 따르면

제나 백전백승하는 령도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가는

그렇다.

강성대국건설의 진두에서 서

여 천만군민을 영광과 승리를

걸고 걸으시기로 민중의 행복을

꽃피고 강성대국은 솟아온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천만이며 그이를 따르면

제나 백전백승하는 령도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가는

그렇다.

『김정일령수님께서 서시

여 천만군민을 영광과 승리를

걸고 걸으시기로 민중의 행복을

꽃피고 강성대국은 솟아온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천만이며 그이를 따르면

제나 백전백승하는 령도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가는

그렇다.

『김정일령수님께서 서시

여 천만군민을 영광과 승리를

걸고 걸으시기로 민중의 행복을

꽃피고 강성대국은 솟아온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천만이며 그이를 따르면

제나 백전백승하는 령도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가는

그렇다.

『김정일령수님께서 서시

여 천만군민을 영광과 승리를

걸고 걸으시기로 민중의 행복을

꽃피고 강성대국은 솟아온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천만이며 그이를 따르면

제나 백전백승하는 령도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가는

그렇다.

『김정일령수님께서 서시

여 천만군민을 영광과 승리를

걸고 걸으시기로 민중의 행복을

꽃피고 강성대국은 솟아온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천만이며 그이를 따르면

제나 백전백승하는 령도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가는

그렇다.

『김정일령수님께서 서시

여 천만군민을 영광과 승리를

걸고 걸으시기로 민중의 행복을

꽃피고 강성대국은 솟아온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천만이며 그이를 따르면

제나 백전백승하는 령도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가는

그렇다.

『김정일령수님께서 서시

여 천만군민을 영광과 승리를

걸고 걸으시기로 민중의 행복을

꽃피고 강성대국은 솟아온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천만이며 그이를 따르면

제나 백전백승하는 령도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가는

그렇다.

『김정일령수님께서 서시

여 천만군민을 영광과 승리를

걸고 걸으시기로 민중의 행복을

꽃피고 강성대국은 솟아온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천만이며 그이를 따르면

제나 백전백승하는 령도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가는

그렇다.

『김정일령수님께서 서시

여 천만군민을 영광과 승리를

걸고 걸으시기로 민중의 행복을

꽃피고 강성대국은 솟아온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천만이며 그이를 따르면

제나 백전백승하는 령도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가는

그렇다.

『김정일령수님께서 서시

여 천만군민을 영광과 승리를

걸고 걸으시기로 민중의 행복을

꽃피고 강성대국은 솟아온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천만이며 그이를 따르면

제나 백전백승하는 령도자

## 평화협정체결은 랭전의 마지막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세기적 결단

조선에서 전쟁의 포화가 몇은지 반세기가 훨씬 지나고 세계적 규모에서 행전이 종식된지도 20년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선반도에는 행전의 산물인 낡은 정전체계가 그대로 가동되며 전쟁과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평화와 발전, 안전을 기본주제로 하는 21세기 세계적인 정치, 경제, 군사활동의 최종요구점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일축족발의 항성적인 전쟁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현시대 발전의 기본흐름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려워지 못한다.

세계정전에서 류례없는 장기간의 조선반도 전쟁상태는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수시로 위협하는 폭발적인 시한만이 다른들 않았다.

전쟁은 전쟁의 일시적 중지, 적대 행위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코 전쟁의 종결로 될 수 없으며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

오늘날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조선반도처럼 반세기 가 넘는 오랜 기간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지역은 없다.

제 1 차 세계대전과 나라들 사이에 체결된 전쟁과 관련한 협약들은 대체로 6개월부터 2년 사이에, 제 2 차 세계대전 종결과 관련한 협정들은 수년 정도, 그것해서 10년 안에 모두 평화협정(장화조약)으로 전환되었다.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로 인한 군비경쟁이 흥미에 화로 전쟁적인 전쟁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세계 각 어디에도 이 지역처럼 방대한 전략무역이 접종전개되어 있고 매일과 같이 핵동전·핵전·핵연습을 비롯한 학약내공기는 군사행동들이 벌어지는 위험 지역은 없다.

특히 전쟁이 장기 존속되고 있는 본거지인 조선반도정부의 불안정은 각종 전쟁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전쟁협정이 조인된 판문점구역은 교

전관계에 있는 쟁방군인들이 50cm의 콘크리트분리선을 사이에 두고 총부리를 마주하고 있는 점에 한 군사접점지역으로서 여기에서는 여려차례의 무장충돌사건이 발생하였다.

지금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조선서 해전연해상에서의 빈번한 군사적 충돌도 만만한 우발적 사전인것은 것들이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이 얼마나 위태롭게 유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지난 시기 수십만건에 달하는 정전협정위반 행위로 하여 소집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만도 수백회에 이른다는 사실이 실증해 준다.

지역의 최대 열점인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조미사이의 정전상태를 끌어내고 평화로 조성하는 것을 더 어렵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것은 결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동떨어진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해결되면 조선반도 평화과정을 담보하는 다른 여의의 문제들이 저절로 물리게 된다.

지난 시기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개 회의장을 비롯한 일련의 조미회담을 겪으며 6년간이나 친환경되며 있으나 실폐를 거듭한 것은 그 원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여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당사자들이 서로 무력으로 맞서고 있는 교전상태에서는 언제가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어떤 문제의 해결도 기대 할 수 없다.

신뢰를 조성하여 비핵화를 더욱 더 그려나가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평화협정체제안의 기원이자이고 법장이다.

평화협정체결은 신뢰조성의 시작이며 그 발전과정에 조미쌍방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존중과 평등의 관계

를 마련하는 계기로 될 것이다.

신피보장문제야말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주되는 근거로 된다.

조선반도 평화보장문제에서 미국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협정체결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조선문제에 개입하여 왔으며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행사해 오고 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그 누구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사업을 대신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여려차례에 걸쳐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립장을 표명하였으며 평화협정체결용의 밝힌다.

미국이 진실로 우리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의사가 있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협정체결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해결되면 조선반도 평화과정을 담보하는 다른 여의의 문제들이 저절로 물리게 된다.

역사가 남겨 놓은 문제들은 마땅히 역사적 안목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 열쇠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여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양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협정체결문제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혜택을 베풀거나 대가를 치르는 문제가 아니라 조미쌍방과 국제사회에 다같이 리로우며 세계의 평화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결실 있는 정직적 문제이다.

평화협정체결을 대하는 태도와 입장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가 아니라 차이가 있는가를 가드는 시금석으로 될 것이다.

미국은 오늘의 역사적 흐름과 정세발전 추이를 빠르게 보고 하루빨리 협정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었을 때는 유관국들의 희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공동의 희망에도 부합된다.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되